

세상의 틀을 바꾼 구원의 길

요일5:10-13

정윤돈 목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온전한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사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 체질, 뿌리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또 새틀을 갖추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 자신의 모든 삶과 체질까지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의 성취될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론-근본적인 질문

1)예수님의 말은 진리인가?

옛날에 CCC훈련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불신자에게 전도를 할 때 물어보는거예요. “예수님이 사기꾼이세요? 예수님이 사기꾼?” 물어보면 길거리 지나가던 분들에게,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사기꾼이예요? 아니면 훌륭한 분이세요?” “사기꾼 아니죠. 예수님 훌륭하시죠.” “그러면 훌륭한 인격자가 큰 거짓말 하였어요?”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나 아니면 지옥 간다”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 된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본체다.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진짜 사기꾼이라고 말하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믿던지. 뭐 알고도 안 믿는 건 자기 뜻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왜 나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가?’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고민하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일하는 곳에 젊은 처자가 있었는데 너무 갈등이 많다고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갈등이 많다고 그래서 상담을 좀 해주라고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오늘 지금부터 다음 올 때까지 자주 방문하는데, 하나님한테 중요한 질문을 하라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예요? (대답) 그렇게 하면 훌륭한 대답이요.(웃음)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예요?’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원찮고, 죄인이고, 진짜 나는 못돼먹었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녁에 계속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니거든. 어느 정도냐? 불만불평 할 수준도 아냐 자기가 봤을 때, 더 물어 그래서, 다음에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더 심해졌다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말하기를 다시 불려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각을 해보라. 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지않아요, 예수님은 구주시잖아요.’

3)이해 못하는 문제

아무도, 누구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안에 하루에도 천만번도 헛갈리고 갈등하고 죄 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삶으로, 누구도 여러분 이해하고 편 돼줄 사람 없어요. 혼돈 흑암 공허. 씨꺼됐다가 헛갈렸다가 공허했다가. 텅 비었다가. 막 헛갈리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정신병원 가서 약 먹어야돼요. 마약 하든지. 그 길 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선악과 창3장 문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인간이 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게 창세기 3장이예요. 꼭 하나님과 싸우고,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높아지니 하나님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습니다. 하나님 내려오세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무너무 깊은 뜻이 있어가지고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어. 에덴동산도 주시고 부인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입고 있는 옷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주시고 나라 없는 민족이 칼의 민족에 가서 살아보세요. 베드로님이 옛날에 나라 잃었을 때 바다에 빠져죽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 과일도 주시고 내 안에, 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행복할거다 말했는데요. 그 사단이 옆에서 세사적인 유희이 오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별로 IQ도 머리도 좋지도 않고 공부도 별로 못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야 정녕 죽으리라!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약간 자기 방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아니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질거야. 자가 더 똑똑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다 만든 속에 살면서,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럼 사세요. 입지 말고 사세요. 공기도 지금부터 우리 5분 동안 숨 안 쉬겠습니다. 다 하지 말고 사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불만불평 많고 하나님 안 믿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것 다 누리고 살면서. 이걸 뭐냐면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단 숨 5분 10분 안 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더러운 배주 무 과일 쌀 한 톨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물론 사람에게 비하면 그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이 사람보다 좀 더 공부 잘할 수도 있고, 약간 더 착할 수도 있고, 약간 더 성실할 수도 있고, 약간 더 달리가 빠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암기력이 약간 좋을 수도 있고, 머리가 회전력이 빠를 수도 있고 계산이 빠를 수도 있고, 인간 앞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예요. 티끌이예요. 그 앞에서 함부로 우리가 고개 들고 그래선 안 돼요.

1.정확한 답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 질문을 하셔야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인간인 나 스스로의 절망, 문제,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삶 속에 그것이 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아 오직 예수님 밖에 길이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 결론이 난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다른 것이 필요없구나.’ 이렇게 내가 인생이 어려운데 길이 없잖아요.

1)처소를 예비하러 가심(요14:1)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면, 인생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빨리 천국 가시면 돼요. 자살만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예수님이 천국 가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천국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으니 거긴 너무나 넓고 많아가지고 다 예비하고 준비되던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노니”(요 14:1) 그러니 주님 앞에 다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이 들고 몸 아프고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불쌍해도 사는 세월, 생기는 주름살, 절대 없앨 수 없어요. 아픈 몸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은 해결을 하세요. 영생을 얻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다 해결해주셨어요.

2)예비된 영혼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제시를 할 때, 처음 듣고 바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에 주유소에서 메시지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내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몇 마디 이렇게 하더니 영접했대니까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데, 류복사님이 그 모습, 한 두 명의 평신도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전도 운동에 올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난 설교를 듣고 그런게 아니예요. 그 평신도가 데려가서 영접시키는데 그게 몇분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짧게 하는데 영접 하나?’ 그랬더니 ‘아 예비 된 사람은 그냥 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떻게 찾나” 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비된지 모르니까 다 해보는 거”라고. 5분만나면, 아니, 1-2분만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잖아요. 부드럽게. 처음부터 모든 10분, 1시간 메시지 할 마음으로 달려들지 마시고, 감 억웠는지 안 억웠는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영안이 열려야 돼. 그게 시간표야. 진짜 고민. 중국에 갔는데 굉장한 사명자가 있어요. 앞에 딱 앉아서, 유부녀한테 똑똑해요. 의사인데다가 은행원 회계사였다가 완전 똑똑한데 신학생 공부를 하는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했더니 자기가 은행에서 앉아있는데, 앞에 어떤 청년이 그 직원이 되게 성실한 직원이 열심히 하는데, 자주 책상에 엎드리고 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중간중간에 너는 왜 몸이 안 좋냐? 중간에 왜 자꾸 자니? 그러니 자는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라고. 다른 말로 정시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은 응답을 안 해주는데 너희 신은 들어주냐고. 그러니 너무 잘 들어준다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잘 들어주는 건 아니네. 이 분 만나고 끝났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나요. 나는 잘 못전하는데, 한국에는 선교사가 있으니 만나라. 그래서 만나게 해줬다.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집을 뺏주는, 운명 시주팔자를 뺏주는 그런 분이였대요. 근데 이 분이 자기 스스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눈알을 뺏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 눈으로 너무 나쁜 짓 해서, 점 보고 뭐하고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 눈 그대로 죽을 수 없다고 자기 눈을 뺏대요. 이상하게 그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온 형제가 눈이 나뻐대요. 그 후로 관계가 없는데.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일이지. 그 분이 할아버지였는데 형제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자기 공부들 너무나 잘했는데, 자기가 집안에서 남편을 얻은 때, 여자분이거든요 그분이. 그 사람은 대학도 졸업하고 고졸자야. 근데 눈 좋은 남자를 얻은 거야. 시력 좋은 남자. 기준이 그거야. 시력 좋은 남자를 얻어가지고 결혼을 딱 했는데 자기 딸이 안경이 (두꺼운) 천도안경을 쓰고 있다고. 쉽게 말하면 그게 하나의 운명 시주팔자예요. 이 재앙을 끊지 못 하는거야. 그대로 내려오는거야. 그게 마음에 확 있었는데 복음 듣고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그 할아버지는 왜 젊어서 귀신과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았는가? 알게 됐다. 이걸 끊는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눈 나빠도 관계없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다보면 눈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게 별 문제가 아니네, 마귀는 그걸 가지고 딱 운명으로 묶어 버리는거예요. 틀, 와꾸, 울무. 콧 묶어가지고, 여러분 이상한 남편 문제예요? 모든 남편이 나름대로 다 이상한 게 있어요. 정도차이 일 뿐이지

바뀌 살아 볼래요 우리? 진짜 골때리는 남자들 대부분이예요. 착해빠져가지고, 바깥에서 살아볼래요? 다소 심한 사람으로 제가 바뀌드릴게요. 한달만 살면 우리 남편 최고였구나 할 거예요.

3)문제에 속는 사람들

이 문제가 아니네, 이 울무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 빠트리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서요. 시간 지나면 아무 문제가 아니네 거기 매여가지고 빠지고 묶이고 그레가지고 응답 받을 시간표를 매 맞을 시간표로 만드시고, 능력도 좋으셔서 진짜, 하나님이 다 축복 주셨는데, 축복의 시간표를 터지는 시간표로

만드시고 능력이요. 대단한 능력이야. 이 속사람이 복음 아니고 다른 것을 자꾸 선택하니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마귀 이야기는 좋잖아 가지고 들어서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의 인간의 '나'라는 체질이예요. 더럽게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나하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거예요. 다 준비 됐다가요. 그분들한테 딱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믿게 돼요. 이렇게 해서 300명만 진실되게 영접하면.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인생의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300명만. 그러니까 할 때는 셋 더 마우스,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 안에 그레아지만이 여러분 '이야 이게 믿을이고 복음이고'. 그 전까지는 여러분 계속 복음을 읽고 듣고 하셔야 돼요. 계속 목사님 메시지 듣고 그리고 계속 해야돼요. 반복해서.

축구 잘하는 이강인 보면 특징이 있어. 축구 잘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을 계속 보는거야. 이강인은 (덩치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메시 하는거보다 더 잘해. 24시를 이강인한테 배웠다가요. 전도를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돼요. 축구하는데 목사님이 축구하다가 다리 다쳐가지고. 그런 것 24시 하지 마시고 전도 24시 하라니까. 이강인 그 친구가 계속 보는거예요. 우리도 류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하는 것이다. 바로 같죠? 안 그래요. 기수도 잘 부르는 사람 계속해서 똑같이 음악 들어요. 강도의 마찬가지로요. 그대로 해요. 그러면 나의 것이 나오잖아요. 그 이상의 것. 처음부터 비판해가지고 류목사님 메시지 안 듣고 어찌고 저찌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게 영적문제라니까. 안 될 사람의 특징이예요. 무슨 싫은게 많고 나쁜게 많아. 사람 안에 여러분 100가지 중에서 훌륭한 것은 한 두가지 밖에 안돼요. 귀할수록, 땅 속에 들어가면 다이아몬드 구할 때 석탄이나 이런건 캐면 다 나와 시커먼거. 그러나 다이아몬드나 금을 할 때에는 사금 할때에도 트럭으로 막 땀땀을 하는데 조금 나와요. 복음의 진리나 이런것도 마찬가지로요. 가치있을 수록 그래요. 산더미 같이 흩어있는데, 저게 흙 덩어리야 말해요.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있는 금을 아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아는 사람은 그걸 흙으로 안 본다니까요. 흙조차도 소중히 생각한다가요. 신앙생활이나 진리도 마찬가지로요. 많은 메시지 듣고 훈련이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있지 않나. 감추어져있는 것을 알 때 이 모든게 소중한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 가치 있는 것을 주시어요. 류목사님 메시지 테이프 엄청 많아요. 그 안에 소중한 게 담겨있다 그 안에서 그것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니까요. 지난번 어떤 테이프는요. 제가 계속해서 복음소식 류목사님 꺼 듣거든요. 5분 10분. 근데 이게 수백번 들었는데, 또 다시 나에게 들리는 게 있잖아요. 아 맞아, 저런 말을 했고 저런 내용이 있었구나.

2. 복음소식

1) 하나님 떠남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만 문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소식에서 그 말 했잖아요.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나무도 새도 다 타락했거든요. 그런데 류목사님 메시지 중에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그 땅 안에 새도, 물고기도, 사자도, 다. 회복되니까 다 사자도 독사도 물지 않고 놀고 엉겨잖아요. 그 전에는 예뻐했는데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영적력, 식물도, 동물도 다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보니 바퀴벌레도 타락한 거예요. 그때는 바퀴벌레는 굉장히 이쁘고 귀여웠는데. 바퀴벌레가. 타락하니깐 그렇지. 지렁이도. 지렁이 너무 맛있어서 찍어서 먹었을까야 아담과 하와도. 근데 지렁이도 막 더러워지고, 타락한 거라니까요.

2) 되는 것이 없는 인생

그 메시지 쪽 듣다보니까 아 그래 그 말 속에 다 있는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았다. 이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이 없어. 여러분 창3장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꼬이고 인생이 되는 것 없어? 하나님 떠나서 창3장에 땅도 저주를 받고 되는 것이 없고 운명 시주팔자에 매이고 그랬다가요. 하나님 떠나서, 그제 창3장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 저주받은 창3장 운명시주팔자에 매여있고 재앙과 저주에 매여있는 그 속에서 해방 받지 못하고 자유 얻지 못하고, 거기서 틀에 갇혀가지고 빠져가지고 묶여가지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창3장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그리스도고, 그 분이 하나님이고, 근본문제. 근본문제를 해결했으면 문제가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왜? 모든 문제 끝났대매요. 해결했대매요. 그런데 있잖아요. 왜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끝나는 문제가 있어요. 지옥 문제. 신분의 문제는 해결돼요. 지옥 안 가요. 천국 들어가게 돼요.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이 구원의 메시지야. 영접하는 그 순간 신분이 다 세탁 되는거야.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게 다 세탁돼. 그때 여러분이 완전히 정말 끝낸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져요. 기운이. 영접할 때 어떤 자세인지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우리 권사님도 계셨고, 여러분도 들었어요. 예수 안 믿다가 영접을 했는데 몇 개월동안 나무나 꽃이 다 달라보이더라. 그런 분은요 과거에 진짜 고인이 많고 인생에 문제가 많았던 분들이예요. 방이 더러울수록 청소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기분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뭐냐면 주인 자체를 딱 바꿔버렸어요. 인생이 올인할 수밖에 없는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런 사람은 문제를 모르고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고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예수를 영접할 때, 그래요 하면서 머릿속으로 한 쪽으로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생명이 들어왔는데 적게 들어온거지. 아직 '나' 너무 고된 많은 사람은 '나'가 없어. 어떤 분은 생활이 어렵고 보면 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별로 뭐가 없는 사람 일수록 나를 주장하면 다 망할줄 알아. 그 욕심 그것을, 나를 지킬 사람은 엄마도 아빠도 아니고 딱 나하고 돈. 그것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못 놓는거예요. 좀 어렵고 무식한 사람들이 여러분 고집 없을 것 같죠? 훨씬 많아요. 수준 낮은 사람이 훨씬 생고집 많아요. 인격이 높은 사람들 책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알았잖아

요. 이렇게 모르고 무식함을. 그래서 나를 많이 내려왔던가요.

3) 원색적인 복음

여러분 유식할 사람일수록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책 이야기 아니고 원색적인 이야기 하세요. 류목사님 그러셨어요. 유식하고 엘리트일수록 원색복음 전하라. 죄인이잖아요. 의인이세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하나님 떠나서. 그제 선악과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내 지식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 판단. 교회 판단. 목사님 판단. 말씀 판단. 이게 하나님 판단하는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머리사라고 했고 예수님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거예요. 그게 창3장입니다. 하나님 떠남 문제. 여러분 이 복음, 잘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초창기에 류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한 천번정도 이것을 하니까, 내 것이 되더라고 하더라고. 그 선교사님은 계속 부인하고 싸워서 싸움을 하면서. 영적 문제가 너무 깊어서. 그러니 뭐가 안되는거예요. 그러며 저한테 그러더라고. 천번정도 하니까 내 것이 되더라고. 지금 아주 두 분 사이가 좋아지고요. 사역 잘하시고. 그 아들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RTS에 일본에 있는 좋은 명문 대학고 나와서 RTS하고. 그 모습 보거든요. 여러분 초창기에 류목사님께서는 이 복음메시지를 3천번 정도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목사님이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실천했는데, 그 분을 볼 때마다 이분은 진짜 복음 소식 처음엔 기본메시지 기초메시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초입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없으니까 자료에 시달리고 전도자료 주라고 하고 그렇지요. 그러니 기초가 아니예요. 이 복음 전해서 생명 살아가는. 금요일날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GS25시 마트 안에서 애들 초등학교생들 모아놓고 거기서 딱 하니까 목사님 하면서 복음 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다 왔어요. 금요 기도회 때 물어보니까 지수 친구들인데, 싸 왔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날 아나봐. 인사도 나한테 하고. 그게 행복이랑이까요. 계속. 그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그들에게 창3장 문제, 하나님 떠남 문제 근본문제를 알려줘야돼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좀 잘 먹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주신 명령과 회화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이 발판이기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창1장 바로 그거예요. 창3장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고, 창3장의 문제. 불신앙, 죄,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내용인데요. 불신앙. 지금도 마찬가지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안 믿어. 거기서 모든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안 해. 원수로 사랑하라. 안 해.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예요. 주일을 거룩히 삼가라. 안 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3년 동안 내가 교회 다녔는데 응답 받은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수요일예배 몇 번 드렸어요? 주일 저녁 오후예배 몇 번 드렸어? 2번인가. 금요일예배 몇 번 드렸어? 어저데 한번. 그렇게 30년 모든 예배 드린 사람도 문제 많아. 그제놓고 뭐 한 게 있다고 응답 못 받아? 조금만 집중해서 응답 받으니까 달라진다가요. 여러분 주일 성수만 제대로 잘하고 몇가지만 제대로 잘해도 여러분 달라요. 저는 생각해요. 참 후대들에게 받을 응답을 전부 까먹고. 여러분 모든 예배의 시간에 천만원씩 수표 준다하면 빼먹겠어요? 근데 사실은 자식 3-4대까지 생각한다면 그정도 계속 받고 있는거예요. 그렇게 참여하는 분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분들은 그 응답 받고 있는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돌아보고 100년만 살아보세요. 자식 손자 다르다니까. 후대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 말고 지금 앞에 힘들다고 갱쟁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배 빼 먹고 딴 짓 하고 저는 그 저주와 재앙, 축복을 지금 뺏아가는 거라니까요. 한번 그렇게 함으로써. 말 함부로 하면 천만원 내야하면 함부로 하겠어요? 미워하면 1억 줘야한다 하면 미워하겠어요? 세상적인 법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아예 믿지 말고 세상적으로 사세요. 그러면 마귀가 마귀의 성공, 돈, 바벨탑의 창3장 6장 11장 응답을 줄 거예요. 나중에 지옥가고 이용당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달라야 돼요. 받는 복도 달라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그 눈도 달라야 돼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야 돼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말씀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문제가 오고, 오만함이 문제.

4) 불신자 상태

근본문제가 시작돼서 5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문제. 정신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육신문제. 삶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사업이나 다 육신 문제 아니예요. 그리고 내세문제. 지옥문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간에요. 하나님 떠남 사람들. 그리고 후대문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이렇게 응답 받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 그런데 하나님 떠남 사람들은 이 고통 속에 다 산단말이에요. 오만까지. 물어보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몇 가지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됐나봐. 오만까지. 이 땅에 문제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왜 이렇?' 생각하지 마세요. 창3장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오만까지 문제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석탄 캐러 갔는데, '왜 이렇게 더러워지고 웃어 묻지?' 지난번에 이예란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 사는데, 흑암이 캄캄한데, 캄캄한건 당연한거라고. 솔로몬 제도나 비누아루 이런 데는 전기 산 속에 올라가니까 왜 이렇게 캄캄하지? 아 인생도 캄캄하구나. 너무나 당연하구나.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

5) 그리스도 영접 - 승리, 치유

창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가 자기 죄인 행세를 하고 이 땅에 살았어요.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섬길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구원 받고 조금씩 조금씩 그 문제의 주인 바꾸면요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 영접하면 영혼이 바로 치유돼요. 구원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과 생각, 삶과 육신 같은 것은 시간이 필요한 말이에요. 그게 1대 2대 3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불러서 43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 넘도록 하다가 광야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40년 생활하다가 또 가나안 들어와 가지고 수 백년 동안. 그렇게 블레셋, 아람 이렇게 하다가. 앗수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로마에 속국 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언약의 여정이 전쟁터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왔다가. 이런 문제 왔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체질, 그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 자녀의 체질에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은 만들어가는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은 꼭 할 필요가 있었나? 그 중에 12명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믿는 사람 2사람 밖에 없었잖아요. 열흘이면 가는 길을 40년 뻥뻥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믿으면 시간 당길 수 있단니까요. 그러니까 헛갈리지 마시고 딱 믿으세요. 그리고 시간표를 당기셔야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약 환자한테, 마약 24시 생각하는데 어떻게 끊냐고 했더니, 끊어지지 않거든요. 중독자들은.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말씀 듣는대요. 안 그러면 바로. 여러분 알콜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세요? 논리 끝내줘요. 근데 마약 중독자야. 알콜 중독자 진짜 말 잘해요. 잔소리도 잘해. 그래서 술취해서 말하는거 제일 싫어해요. 어렸을 때 그런 인간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말 잘하면 똑바로 좀 살지. 얼마나 남 비판하고, 얼마나 남 섭섭한거 그렇게 잘 찾아내고. 저는 말 잘하고 잘 많은 사람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중독자니까.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되지.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아. 괜히 나쁜 생각해요. 다들. 근데 그 너무 어려워요. 돌아가는 중독자의 머리를 스톱시켜야한단니까요. 말씀만이. 결론 내야 되는데, 결론 안 나니까 계속 돌아가요. 생각은 많이 하고 말은 잘하는데, 건질 것이 하나도 없어. 그 인생은 중독자 실패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생각할 필요 없을 정도로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들이에요. 못 참으니까 입이 나불나불 거리는거예요. 그 능력이 없단니까요. 생각은 그칠만한 능력이, 내 입을 그칠만한 힘이 없어요. 이유도 몰라. 굉장한 성령충만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24시간 복음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다니니까요. 3천번 할 정도로. 내가 이 복음 전해가지고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러면 인생, 운명 사주팔자 완전 바뀌게 돼요. 그러다고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누리고,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예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훌륭하게 살아가라 착하게 살아가라.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 되어져야 돼요. 되리라.
2. 교회 강단에서 점점 원색적인 복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위기에 있고 이미 유럽과 미국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4.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면 세상에 모든 잘못된 사상과 기준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모든 지식과 철학이 창3장에 나온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제 딸이 램네티 신배가 미술 디자인을 전공해요. 석사 졸업하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사진을 찍어왔어요. 멋지지 않냐고? 봤더니 거지 누더기 옷 같은 것을 걸어놨는데 멋지대. 그래서 뭐가 멋지냐 거지 옷 같은데 걸레 같은 것 걸어놓고 뭐가 멋지냐(웃음) 그게 아니라 설명했어요. 도자기로 이걸 다 구워서 그 그릇을 다 깨가지고 그 도자기 가지고 드레스를 만들었다 다 붙여서. 확대해서 보니까 다 도자기 그런거예요. 그러면 이 도자기 자체를 깨가지고 이것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재창조. 보면서 '이야 역시 램네티구나.' 자기의 어떤 전공을 복음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그런 램네티 저 몇 번 봤거든요. 진짜 어떻게 말씀을 딱 이렇게 자기 전공에 (적용하나?) 우리는 말씀 따로, 전공 따로 이렇게 살았는데. 딱 적용하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세상의 지식과 문화를 복음으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예술 하는 사람이 다 성격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나니까. 창3장.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야하는데 하나님 떠나서 나를 위한 작품 바벨탑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식이고 군사력이고 전쟁이었고 니므롯이었고. 도시를 건설했고. 뭐죠? 하나님 떠난 창3장 문제에서 왔다는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창3장, 하나님 떠난 근본문제 모르면 지식도 사상도 경제도 건축도 프리메이슨. 이 모든 게 마귀적인 게 돼버려요. 우리는 이것을 프리메이슨이 홀리메이슨으로 재창조. 재적용 재해석. 복음을 깊이 묵상을 하면 모든 게 보여요. 인간, 가정, 이 문제가. 해결책도 보여. 그 정도까지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5. 이 복음을 증거 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평생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틀을 바꾸는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마음 속에 깊이 각인하고 창3장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오만가지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 지옥의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참된 행복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그들에게 내가 먼저 체험하고 증인이 되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